



익산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이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수성 조합장은 “산림조합 5,000여 명의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익산산림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소중한 성금은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성껏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산림조합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기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박강용 옷칠공예관장,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는 관내 옷칠공예관 박강용 관장이 7일, 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인 박 관장은 남원시 옷칠공예관 관장을 역임하며 꾸준한 작품활동 및 후진 양성을 통해 남원의 대표 특산물인 옷칠목공예 기술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박강용 관장은 “우리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청소년 인재 양성을 기원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전했으며, 남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지난 2024년에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 지원사업 및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남원에 기부해 주신 기부자들이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성아씨들,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무주군 안성면에서 활동 중인 바느질 동호회(회원 10명), ‘안성아씨들’이 7일 무주군에 50만 원을 기탁했다. 류영희 대표는 “안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모여 취미생활도 하고 이웃도 도우면서 보람을 찾고 있다”라며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기부금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웃돕기와 장학금 기탁 등 좋은 일에도 동참하고 있는 ‘안성아씨들’은 2023년에 150만 원, 2024년에 50만 원, 2025년에 50만 원 등 3년째 프리마켓으로 발생한 수입을 기부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봉면 ‘온새미로’, 김제시에 성금 100만원 기부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주민 친목 단체인 ‘온새미로’(꾸밈없이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뜻하는 순우리말)가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온새미로는 7일 진봉면(면장 최근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온새미로는 진봉면 주민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사내방

▲우범기 전주시장

전북대, 사랑의 연탄 나눔 ‘훈훈’

전주연탄은행 통해 1500장 후원… 낙수정 마을서 연탄 나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학생들이 지난 6일 전주 낙수정 마을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서 양 총장과 60여 명의 학생들은 연탄 1,000장을 직접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에 참여한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여러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웃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적극 참여하게 됐다”며 “작

은 나눔이지만 우리의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전북대가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후원한 연탄 1,500장 중 1,000장은 이날, 남은 500장은 13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문성 기자

국립군산대, 2024학년도 동계 잇다 발대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국제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4학년도 ‘동계 잇다(International Trend Trade Agreement) 프로젝트’ 발대식을 7일 대학본부에서 개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원 27명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박 12일 동안 라오스(동막카이초등학교, 비엔티안특수학교,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교육 및 노력봉사와 SDGs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파견단원에는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이 포함되며, 소수집단 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간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국립대학교 재학생 8명이 연합봉사에 참여해 대학 국제화 및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장호 총장은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소수집단 학생들의 대학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관 “2023학년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서 라오스 국립대학교 및 비엔티안교육청 연계 SDGs 프로젝트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부안청년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부안청년회의소(회장 신정우)는 지난 6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젊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부안청년회의소’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지역의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상견례 및 덕담을 나누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각 읍면 주민, 부안IC 특우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 및 IC 홍보영상 시청, 개회 및 국민의례, 신정우 신임회장과 김장기 특우회장의 신년사, 권익현 군수의 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신년인사, 부안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세배와 주요 내빈 축하떡 카팅식 및 축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안청년회의소 신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안청년회의소는 부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바쁜 일상에서도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부안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25년도에도 지역의 소외계층 등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한 뜻깊은 봉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적십자 노암동 봉사회, 노암동에 백미 기부

남원시 노암동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남원시 노암동봉사회(회장 이학보)가 지난 1월 6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백미 10kg 12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노암동봉사회는 현재 2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학보 회장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쌀 기부를 통해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나눔의 정신이 온전히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삼코라, 김제시에 겨울이불 100세트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주)한삼코라(대표 조민수)가 겨울 이불 100세트(6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조민수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겨울 이불을 준비했다.”며,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삼코라(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겨울 이불은 난방 취약 계층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삼코라(주)는 30년의 업적을 자랑하는 수처리 설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STS 라이닝, 물탱크, 여과기, 재열 투입장치 등을 생산하며 우수 제조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원주군수,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유희태 원주군수가 7일 군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에 원주군의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도내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사업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유희태 원주군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적십자회비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모금을 실시하며, 회비는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ARS, 휴대문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원주=염재복 기자



유익식 원주군의회 의장,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원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7일 의회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유익식 의장,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해 이재민 구호 △사회봉사 △저소득층 생계지원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익식 의장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전통시장·5일장 상인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회가 7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돕는 데 사용돼달라며 각 상인회에서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김제전통시장은 성산길 149 일원에 위치한 시장으로, 23년 4월부터 5일장 확대운영을 실시해 2, 7일로 끝나는 날에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김진수 5일장 상인회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발걸음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으로 기탁을 진행했다”며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진기획, 무주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서 광고 제작·설치·납품업을 하고 있는 유진기획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모유진 대표는 “우리 아이도 고2 때 재단으로부터 기숙학원비를 지원받아 공부했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장학금을 받으며 큰 도움 받고 있다”라며 “무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귀한 사랑을 받고 나누며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